

## 바르셀로나, 자동차 없는 '초대형 슈퍼블록' 확대 계획 발표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0-11-11/barcelona-s-new-car-free-superblock-will-be-big>

[https://ajuntament.barcelona.cat/ecologiaurbana/en/noticia/turning-barcelona-into-a-big-superblock\\_1005852](https://ajuntament.barcelona.cat/ecologiaurbana/en/noticia/turning-barcelona-into-a-big-superblock_1005852)

바르셀로나는 지난 11월 11일, 2016년 포블레노우(Poblenou) 지구에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보행자 우선 구역인 '슈퍼블록(Superblock)'을 처음 도입한 이래, 2030년까지 사그리다 파밀리아 성당, 카사 밀라 등이 위치한 에이 샴 플라(Eixample) 지구 내 21개의 거리 전체를 초대형 슈퍼블록으로 새롭게 지정하여 보행자 친화 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을 밝혔다. 바르셀로나처럼 공원이 적고 인구밀도가 매우 높은 도시의 경우, 이러한 슈퍼블록은 자동차가 사라진 교차로와 거리를 활용하여 공공 공간과 녹지 공간을 제공하는데 효과적이다. 아다 콜라우(Ada Colau) 바르셀로나 시장은 이번 계획에 대해 "환경오염을 줄이고, 새로운 공공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며, "현재와 미래의 새로운 도시를 고려하는 시도"라 말했다.

이처럼 새롭게 슈퍼블록으로 지정된 에이 샴 플라 지구 내 거리는 거주자, 구급차 등 필수 서비스, 배달에 한해서만 출입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자동차의 최고속도는 시속 10km로 제한되고, 일반 자동차의 통행은 지구 주변부에서만 허용된다. 이를 통해 약 33.6ha의 보행자용 공간과 6.6ha의 녹지 공간을 확보하고, 약 2,000m<sup>2</sup>에 달하는 21개의 새로운 공공 광장을 조성할 예정이다. 궁극적으로는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량 저감을 통한 대기 오염, 이산화탄소 배출, 소음 공해를 줄이고, 지역 상거래 활성화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 장려 등 지역 경제를 위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바르셀로나는 슈퍼블록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디자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2021년 5월부터 공모전을 시행할 계획이다. 공모전의 주요 원칙으로, 여름에는 거리의 바닥 면적이 80% 이상 나무 그늘로 조성되어야 하며, 흡수조절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표면은 20% 이상 투수성을 갖춘 풀과 흙으로 덮어야 한다.



슈퍼블록으로 지정된 에이 샴 플라(Eixample) 지구와 교차로 구역 내 녹지 계획

출처: 바르셀로나시 홈페이지, <https://ajuntament.barcelona.cat/premsa/wp-content/uploads/2020/11/201111-DOSSIER-Superilla-BarcelonaVDEF.pdf>(검색일: 2020. 12. 16.)